

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눈덮인 담양 관방재림. 천연기념물 366호로 지정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떤 사업 추진되나

“친절이 가장 좋은 관광자원”

이기신 광주도시마케팅 본부장

“친절이 가장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실무를 도맡고 있는 이기신(55) 광주도시마케팅 본부장은 친해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광주·전남을 외지 방문객들이 다시 찾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친절이라고 강조했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아 공동추진하는 올해 최대의 역점사업이다.

광주와 전남의 경제적 기반이 관광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에서 관광객을 맞는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실. 실제 문광부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 번 방문했던 관광객을 다시 찾는 이유로 첫 손 꼽힌 것은 현지 주민들의 친절이었다.

“친절은 무형의 관광자원입니다. 관광객들이 광주·전남 여행을 준비하면서 좋은 인상을 받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단지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양 시도가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은 만큼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남권 거점 도시인 광주의 관광자원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전남도의 관광자원을 공동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생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제 관광객을 기다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재민 기간 동안 광주를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윤영기자 penfoot@

‘발견과 감동’... 동북아 관광 허브 도약

2008년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광주·전남 방문의 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 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공동 유치, ‘맛따라 멋찾아! 광주·전남 2008’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본격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광주와 전남을 동북아 관광의 허브로 만들어간다는 야심찬 포부다.

이에 광주일보는 연중기획 ‘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연재한다. 지역의 숨겨진 비경과 다양한 축제를 소개, 관광자원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시·도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

150개 여행지 73개 여행상품 개발

비엔날레·지역 대표 축제들 연계...4계절 투어도

전문 해설사들 준비 민반 “가장 기억 남는 곳”으로

광주 비엔날레와 김치축제, 무등산 등 맛과 멋이 어우러진 ‘문화 수도’ 광주, 6천419km의 해안선(전국의 50%)과 1천965개의 섬(전국의 65%), 1천54km의 갯벌(전국의 44%), 청정 해역 등 때를 지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전남은 그야말로 ‘관광의 보물창고’다.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추진하는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업의 기본 컨셉은 ‘발견’과 ‘감동’이다.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해양·생태 관광상품을 발굴해 수요자 중심의 홍보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주민과 자치단

체, 관광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방문객에게 감동을 주는 현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사업은 ▲다양한 관광홍보 활동 전개 ▲방문객 수용태세 확립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광주·전남방문의 해’ 선포식=양 시·도는 11일 서울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는다. 21세기 한국 관광의 중심지로 광주·전남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국내 최대 관광 수요지인 수도권 관광객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오는 13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는 이 행사에는 광주·전남 27개 시·군·구가 참여해 지역별 관광·특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첫 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운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중민 문화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다. 또 디자이나 앙드레 김씨, 텔런트 최불암, 강부자, 임원식, 골프선수 신지애씨 등 9명을 홍보대사로 위촉, ‘스타 마케팅’도 펼친다.

◇눈에 띄는 사업·이벤트=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내 관광객 3천300만명, 외국인 관광객 13만4천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관광객 유치방안을 수립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지역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관광수요 개발 전략을 펼친다. 국내는 수도권 등 원거리를, 해외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 지역을 타겟으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외의 관광 관련 박람회와 교역전 등 지명도 높은 행사에도 시·도가 함께 참여해 관광 수요자들에 상대로 지역 홍보활동을 펼친다. 국내는 대구투어엑스포와 한국국제관광전, 부산국제관광전, 경기국제관광전 등이, 국외는 상하이 세계관광박람회, 오사카투어엑스포, 홍콩 국제관광박람회 등이 대상이다.

관광자원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매체와 홍보탑,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외 관광 설명회 개최, 국내외 언론사 및 관광업

계 관계자 등 초청 캠퍼도 연중 실시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광주·전남 150개 여행지를 15개 테마, 73개 여행상품으로 묶은 기획 관광상품이다. 2008 광주 비엔날레와 광주김치대축제, 2008 환경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강진청자문화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광주·전남 10개 대표 축제와 연계한 ‘축제와 함께 하는 여행’이 대표적. 또한 ‘가족 볼스폰 꽃놀이여행’ ‘늑차와 대나무 초록여행’ ‘철새탐조기행’ ‘남도역사·문화인물 기행’ ‘템플스테이’ 등 주제별, 계절별로 테마를 정해 관광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꾸몄다.

시·도는 각 계절마다 이들 관광지를 정해진 기간에 많이 답사한 관광객에게 지역 농특산물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4계절 투어 릴리’도 함께 운영한다. 광주·전남 투어버스와 체류 관광객을 위한 상설 문화관광 공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외지 방문객들에게 고품격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관광가이드 양성 교육과 전국 문화관광 해설사 워크숍을 개최해 타 지역 해설사들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박해구 광주시 관광과장은 “올해는 광주 비엔날레, 환경 나비·곤충 엑스포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리는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계기로 광주와 전남을 ‘21세기 한국의 문화·해양·생태 관광센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다시 찾는 관광지 만들 것”

주동식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사계절 남도 투어팩트 등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해 전남에 많이 오게하고, 도민들의 손님이 태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주동식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관광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광주·전남에는 4월 환경세계나비곤충엑스포, 10월 광주비엔날레와 전남 전국체전, 12월 고흥인공위성 발사 등 대형 이벤트가 즐비하다”며 “차질하게 준비해 수도권 등 외지 관광객이 한번 오면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바뀐다”고 강조했다.

그가 올해 추진하는 관광사업 중 핵심은 ‘사계절 남도투어 팩트’,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남도가 지정한 관광지를 정해진 기간에 많이 답사해 현장 사진을 제출하면 이중 우수 관광객을 뽑아 승용차나 콘도 회원권 등 다양한 경품을 줄 예정이다. 그는 방문의 해가 끝나더라도 인소문으로 남도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의 계절별 관광코스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주 국장은 이를 위

해 지역민들의 손님맞이 태도를 한 단계 높이는 데도 힘으로 쏟을 계획이다. 주민이나 관광업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은 물론, 관광업소에 대한 이동 컨설팅 제공 등으로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친절 컨설팅팀을 생애에 바쁜 관광업소 종사자에게 보내 개선할 점을 알려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가족 위주의 체험·생태관광으로 변한 관광 트렌드에 맞춰 전문문화와 자연경관 등을 활용해 남도를 ‘문화·해양·생태관광의 중심지’, ‘동북아 관광의 허브’로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김주정기자 jines@kwangju.co.kr

삼다 명품 선물세트

광주·전남 특산물 선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1. **해산물 선물세트**
 - 신선한 해산물 선별
 - 포장精美
 - 가격합리

2. **육류 선물세트**
 - 맛좋은 육류 선별
 - 포장精美
 - 가격합리

3. **산채 선물세트**
 - 신선한 산채 선별
 - 포장精美
 - 가격합리

4. **농산물 선물세트**
 - 신선한 농산물 선별
 - 포장精美
 - 가격합리

문의: 02-2222-1111

광주·전남 이형가능장모

대산프리모 남녀가발

확장 이전

가발

세일 30%

초슬림!!

이형가능장모 전문 업체

귀하의 분위기를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문의: 02-673-8888, 072-402-1111

대표전화: 02-673-8888, 072-402-1111

문의: 02-673-8888, 072-402-1111